



20년 전 6월, 265일의 파업을 기억합시다

‘위기’라는 말이 이제는 지겹습니다.
제가 입사한 후 단 한 번도 위기라는 말을
안 들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 전체의 위
기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아니 몸소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동료까
지 부장 발령을 낸 초유의 사태도 출범식
직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일부 후보자
들이 소송을 제기한 안타까운 상황에도 우
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22대 노동조합
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CBS는, CBS 노동조합은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은 340여 조합원 모두가 함께 찾아가
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그 논의를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조직이 토론해서 길을 알려주면 노조는 거
기에 맞춰 행동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활시위를 당겨주면 저희
집행부는 그 화살촉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일단 새 경영진의 기도와 실천을 믿겠습니
다. 다만, 회사가 가는 길이 바르지 않다
면 노동조합이 바로 세우겠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광고 결합판매 제도 문
제, 언론노조 동지들과 지혜롭게 투쟁하겠
습니다.
구결하지 않겠습니다.
CBS의 역사와 존재 이유를 설명하면 될 일
입니다.

마침 정확히 20년 전 오늘은 CBS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265일 파업을 진행했던 선배
들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던 날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당한 교권에 맞서
파업에 임했던 선배들의 결기와 희생..
그 DNA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재단이사회와 새 이사장의 행보, 지켜보겠
습니다.

자본과 권력, 그리고 교권에 독립적인 정도
언론 CBS를 만들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행동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방송을 멈추고 ‘파업’ 할 수 있
는 노조의 힘과 조직력을 복원시키겠습니
다.

CBS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언론기관
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선교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연대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조합원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개척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그 길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행복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2021. 6. 25.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위원장 반태경

[사무국장 브리핑] CBS노동조합 사업계획서

1차년도(2021.6~2022.5) 사업 목표

대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정 방송의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임금과 복지 향상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언론노조 투쟁과 활동에 적극 결합해 연대하겠습니다. 회사의 준비 미비를 견인해가며 '중소방송' 생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보도/제작국장 추천 선거 제도가 전 조합원의 축제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TV제작국/디콘국 등의 공정방송 담보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회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며, 재단이사회의 부당한 경영 개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력을 다시 갖추겠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력 복구를 위한 세부 사업 계획



소통 강화

홈페이지 / 페이스북 / 뉴스레터 '춘노조'



노보 발행

분기 1회 이상 (매 분기말 발행 목표)



사무실 이전

2층 복귀 (노사 협의중)



공감의 식탁

오늘 점심 뭐 먹니? (매주 화, 목)



베이킹 파우더

경험의 공유 (거리두기 완화시)



씨드머니 지원

유튜브, 팟캐스트 제작



신앙 사경회

언론노동자 소명 찾기 (분기 1회 목표)



5.18 광주 순례

민주언론 정체성 고양 (2022년부터)



CBS 1박 2일

타 지역 조합원 만나기 교통비와 여비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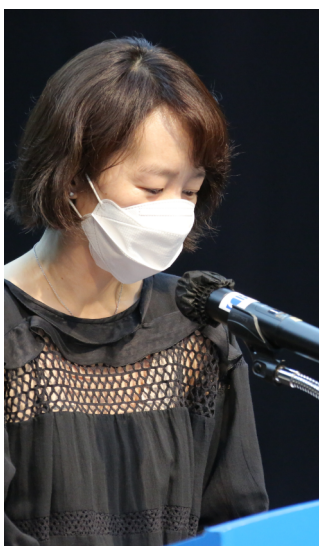


조합원 워크숍

2022년 하반기 추진

- 사무실 이전 : 노동조합은 조합원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2층으로 사무실 이전을 회사와 협의하고 있어요.
- 공감의 식탁 '오늘 뭐 먹니?' : 매주 화, 목 노조 사무실에서 도시락 점심으로 소규모 간담회를 열어요. 같은 부서원들끼리, 아니면 친해지고 싶은 동료와 함께 사무국장에게 미리 신청해주세요~ (카톡/문자 환영)
- '춘노조 씨드머니' 지원 : 유튜브를 시작하시나요? 노조가 일부 지원해드릴게요.(베이킹 파우더 출연 조건)
- 신앙 사경회 : 목회자, 교수 등을 초청해 <CBS에 노조가 필요한 이유>, <언론노동자로서의 소명>, <년크리스천 CBS 조합원과의 대화> 등을 이야기해볼래요.
- CBS 1박 2일(가제) : 지역과 서울, 지역과 지역을 잇겠어요. 다른 지역 동료 조합원을 찾아가보세요. 교통비와 여비는 지원해드려요. (노보 기고 조건)

사진으로 보는 노조 아·취임식



1		3	
2			
5	4		8
	6	7	
			9

조합원 소식



누가 CBS를 불행으로 내모나

사장 선출 관련 초유의 소송 절차

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6명이 지난 15일 김진오 사장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CBS 역사상 초유의 사장 선거 관련 소송 절차 돌입에 대해 노동조합은 유감을 표명한다.

노동조합은 소송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CBS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우선 천명한다.

지난 사장 선출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사장추천위원회 직원대표 선출을 공정하게 관리했으며, 사장 후보들의 직원 공청회와 사추위원 직원대표 공식 면담 등을 진행해 직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일부 낙선자들은 금품 및 담합 의혹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과 여론전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것을 경고한다. 특히 낙선자들이 예고한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은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재단이사회와 회사 역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소송 대응 과정은 엄정하고 투명해야 할 것이며, CBS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백척간두에 선 CBS가 하나가 된다면 평화를 맞을 것이고, 저마다 흩어진다면 서로가 뒤엉킨 전쟁터를 만들 것이다. CBS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조직개편, 너도 몰랐어?

노사 공식 협의는 딱 한 번

지난 18일 조직개편 전 모두 세 차례의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노사 공식 협의는 사실상 회사의 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노조의 요구로 지난 16일 단 한 차례만 열렸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에 관한 공식 노사협의를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콘텐츠경영부문 상무 직제 신설은 과도한 권한 집중과 보도·편성 등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경된 부서명을 해당국 현업자들도 몰랐던 조직개편이었다. 노조는 공감대를 얻지 못한 조직개편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 상황을 청취하겠다.

한편, 지난 24일 조직개편 후속 인사에 노조 부위원장의 부장 발령이 포함됐다. 단협에 따른 사전 협의 과정에서 노조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인사 발령이 강행됐다. 노조는 이를 '단협 정신 위반'으로 판단한다. 노조의 동력이 강화돼야 CBS 공동체 전체의 힘이 유지된다.